

- 이재명의 ‘합니다. 소확행’ 공약 시리즈 51’ -
“5천만 원 기본공제, 투자결손금 5년간 이월공제!”
‘가상자산 과세 합리화’ 공약 발표

- 소확행 1호 공약 ‘가상자산 과세 유예’, 21일 만에 입법 완료... 과세 합리화도 필요해
- 윤석열 후보의 가상자산 과세 기준 상향 방안 수용, 추가로 5년간 손실 이월공제 도입 제안
-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발의해 2월 국회에서 논의 시작 노력... 투자자의 안심 투자 환경 조성할 것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51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‘가상자산 과세 합리화’ 공약을 발표했다.

지난해 11월 소확행 1호 공약으로 ‘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’를 약속하고 입법 성과를 낸 만큼, 이번에는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를 위한 세법의 조속한 논의와 확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.

이재명 후보는 “공약은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법률로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이 후보는 지난 19일 윤석열 후보가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며, 추가로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공약했다.

이 후보는 무엇보다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 법률안을 발의하고 즉각적인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. 세법이 빠르게 확정되어야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측 설명이다. 민주당 선대위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20일 이 후보의 소확행 공약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.

민주당 선대위는 “국민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”는 것이 이 후보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. (끝)

□ 참고자료

1. 가상자산 관련 과세 유예 과정

- 2021.11.11. 소확행 1호 공약 발표 “가상자산 과세, 1년 늦추겠습니다”
- 2021.12.2. 소득세법 입법 완료 (D+21일)
- 2021.1.1. 소득세법 시행으로 과세 1년 유예 (D+50일)

2. 가상자산 과세 방안

- 가상자산소득으로 과세 항목 신설
- 기본공제금액을 5,000만 원으로 높이고, 투자손실분은 5년간 이월공제

< 가상자산 과세 공약 >

	현행	공약
분류	기타소득	가상자산소득(신설)
기본공제금액	250만 원	5,000만 원
세율	20%	20~25%
손실 이월공제	없음	5년
과세연도	2023년 1월 1일	2023년 1월 1일

3. 가상자산 거래금액

-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금액이 상장주식 거래금액의 80%에 육박
- 다만, 상장주식은 우리나라 주식투자에 한정된 반면, 가상자산은 우리나라 상품뿐만 아니라 외국 상품에 대한 투자금액까지 포함

< 금융상품 일평균 거래대금 비교: 2021년 >

	조사기간	일평균 거래대금
상장주식(A)	2021년 1~12월	27.0조 원
코스피	2021년 1~12월	15.2조 원
코스닥, 코넥스	2021년 1~12월	11.7조 원
가상자산(B)	2021년 4월	22.0조 원
비교(B/A)		81.5%

자료: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, 보도자료(2021.5.28.) “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”

4. 가상자산 과세 설문조사 결과

-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이득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58.8%를 차지
-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나 의향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 기준을 5천만 원으로 하는 방안(47.6%)이 250만 원으로 하는 방안(45.6%)보다 높았음

<가상자산 과세 설문조사 결과>

	투자이익 5,000만 원 초과 시 세금 부과	투자이익 250만 원 초과 시 세금 부과	모름/무응답
투자경험 있음	73.0%	25.9%	1.1%
투자의향 있음	70.5%	27.7%	1.8%
경험·의향 없음	47.6%	45.6%	6.8%
전체	58.8%	36.8%	4.4%

자료: 민주연구원 설문조사 결과(2021.10.30.-11.1. 전국 1,000명 조사)